

지역인사칼럼

지성과 지식의 산실 동서대

천재교육의 나라라 일컫는 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좋은 선성(학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지역가치가 높다고 한다. 삶의 질도 중요하나 미래의 방향을 잡아주는 교육의 중요성을 말함이다.



임마누엘 교회 조 종남 목사

"완구(玩具)없는 역사(歷史)" 즉 과거지향적인 조상제사, 무덤은 쟁길 줄 알았지 후대의 창의성등 미래지향적이지 못했던 한국 풍토에서 지식, 지성의 전당의 잠재적 중요성을 얼마나 알까?

나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삼은 동서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엄광산 품안에 웅장하게 자리잡은 지성의 동산으로, Clean Campus로서의 교정과 환경친화적 조형미를 갖춘 건물 하나 하나에 애정과 무한한 비전을 느낀다. 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 세계를 품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주역들이 되길 바라고 있다.

나는 지역 교회의 목회자로서 대학을 즐겨 찾는다. 이 곳에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이 있음이며, 지식의 산실인 도서관이 있음이다. 학생 만나는 정겨움과 책을 만나는 즐거움은 목회자로서 달콤한 축복이며 교직원, 교수들과의 친교는 한 잔의 향긋운 차(茶)와 같다.

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학교 당국의 호의에 의해 수시로 찾아와서 만남의 축복을 나눈 학생 수가 얼마이며 손을 거쳐간 책의 양이 얼마인지 헤아릴 길 없다. 작년 한 해 대출해서 읽은 책만 해도 63권에 이른다. 이것은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고(寶庫)가 아닌가?

지금도 신학교에서 『로마서』란 성경을 강의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각종 전문서적을 참고하며, 도서관에서 학생들 틈에 끼여 연구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인 이야기』를 대여해서 읽고 있는 중이다.

전, 현직 도서관장께서 도서관내에 "지역주민실"을 마련해 주셔서 동료 목사와 함께 올 때마다 이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동서대학교가 세계화, 전문화의 명문사학으로 시대적으로 쓰임 받을 것과 이사장님, 총장님, 교수님, 교직원 이하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다시한번 더 축원하는바,

"세계를 바라보는 대학 세계를 품은 행정력 세계를 무대로 뛰는 학생들이 되길!"

Headline News

▶전자책(e-Book) 도서관 서비스 실시

중앙도서관에서는 2005년 3월4일부터 전자책(e-Book) 도서관을 구축하여 서비스 실시하고 있다. 이용가능 도서로는 어학관련, 레포트관련, 문학관련 도서 624종의 전자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자책(e-Book) 홈페이지에는 전체목록을 수록하고 있어 이용 가능한 자료를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문학관련 도서 목록은 제외)



※전자책 이용안내

1)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검색했을 때 간략서지 항목의 참고사항이나 원문항목에 "전자책"으로 표시된 책을 이용하면 된다.

Table with columns: No., Title, Author, Edition, Year, Category, and Status. It lists search results for 'Economy and English' and 'TOEIC Bridge'.

2) 전자책 도서관 접속 : http://ebook.dongseo.ac.kr/ 사용방법은 홈페이지 우측상단의 전자책 이용안내를 참고한다 (http://ebook.dongseo.ac.kr/main/elibrary\_helper.asp)

3) 도서관 홈페이지내 "eBook 서비스" 배너 클릭 문의:학술정보관리팀 박광종(pkj@dongseo.ac.kr)

▶『North Korea Close-Up』 서비스 안내

『North Korea Close-Up』은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2005년 1월부터 만들고 있는 북한관련 월간 심층보고서로써 연구소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한달 동안의 북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분석하고, 북한 인물 동향과 북한 관련 일지 등을 게재하고 있으며, www.nkclose-up.com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2면에 계속]

[1면에서 계속]



- 정보내용
  - 1) 매월 25일 발행하는 월간보고서
  - 2) 관련 원문 자료
  - 3) 북한 인물 정보
  - 4) 북한 정기간행물 원문(과학기술산업분야 18종)
- 문의: 학술정보관리팀 나기성 (gee109@dongseo.ac.kr)

▶ Springer Link 서비스 실시

Springer Link 저널은 경제, 공학, 물리, 법학, 생명 과학, 수학, 의학, 지구과학, 천문학, 컴퓨터, 화학, 환경 과학 등 학문 전문분야를 다루고 있는 총 431 종의 저널로 구성되어 있다.



- 접속
  - 홈페이지 직접 접속 : <http://www.springerlink.com>
  -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접속 : <http://libcenter.dongseo.ac.kr> 내 ON-Line 학술 DB / Springer
- 컨소시엄 저널종수: 431종  
(저널의 자세한 사용 방법은 사이트의 "User manual" 파워포인트 자료를 참고)
- 문의: 학술정보관리팀 나기성 (gee109@dongseo.ac.kr)

▶ 계간 지역사회 원문 서비스 안내

교내 지역사회 연구소에서 발행되는 계간 지역사회의 원문 자료 제공 서비스를 2005년 3월부터 동서대학교 도서관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 접근방법
  - 1) 독립 접근: <http://src.dongseo.ac.kr>
  - 2)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접근
    - 도서관 홈페이지 "ON-Line 학술DB / 계간지역사회 원문"을 클릭
    -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에서 "지역사회"로 검색 / 상세 서지 화면의 상단 "E-Journal : src.dongseo.ac.kr" 클릭
- 문의: 열람관리팀 안성두 (stork@dongseo.ac.kr)

▶ 신입생도서관 활용과 자기 주도학습 교육 실시

학생들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학습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자 도서관 이용교육을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2005년 3월 14일-3월 30일 실시하였다.



도서관 이용교육은 자율적인 학습과 주체적인 학습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 및 정보 활용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교과 학습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갖도록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문의: 열람관리팀 안성두 (stork@dongseo.ac.kr)

작가와의 만남

제16회 작가와의 만남

제3회 중앙도서관 50대 추천도서 독후감 공모 시상



제16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와 더불어 제3회 독후감 공모 시상식을 가졌다. 전회에 비해 놀랄만한 발전을 보였다는 심사위원들의 한결같은 평가를 받았다.

우 수	박주희	영어영문	아홉살 인생/위기철
가작상	여행운	영어영문	선물 /스펜서 존슨
	이준호	응용생명공학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시간 / 고미숙
	김은미	디지털방송	콜레라시대의 사랑
	백수아	신발지식공학	아홉살 인생 / 위기철
장려상	백솔기	식품생명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 리처드 칼슨
	김희재	영어영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 켈블랜차드
	전영미	정보네트워크	선물 /스펜서 존슨
	장인영	영어영문	선물 /스펜서 존슨
	정성희	식품생명	인생 / 공병호



제16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는 소설가 오정희(吳貞姬 1947)님을 모시고, <나의 삶과 문학>이란 주제로 2004년 11월 17일(수) 오후 3시 중앙도서관 E - Library (9층)에서 가졌다.

**프로필**

- 1947년 서울 출생
- 1968년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졸업
- 1968년 <완구점 여인>으로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
- 1979년 <저녁의 게임>으로 이상문학상 수상
- 1982년 <동경>으로 제15회 동인문학상 수상
- 1996년 <불꽃놀이>로 제9회 동서문학상 수상

**대표작**

옛 우물, 유년의 뜰, 바람의 넋

## 제17회 작가와의 만남 안내

제17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는 소설가 박상우님을 모시고 <호미한 자루의 문학론>이란 제목으로, 2005년 4월 20일(수) 오후 2시 중앙도서관 E - Library (9층)에서 가졌다.

1. 작가소개 소설가 박상우 (朴相禹 1958. 7. 2~ )
2. 작가이야기

**<감각적인 언어로 낭만주의적 특성이 강한 작품세계>**



대학시절에는 주로 시를 썼지만 1980년, 시국사태로 쫓기던 한 선배의 자살을 목격한 후, 시를 포기하고 소설을 쓰게 되었다. 이후 10년 동안 폭력적이고 제도적인 권력에 의해 파멸되는 개인의 실존을 주제로 삼아 작품화했다. 중편 <적도기단>은 군조직 내의 개인의 자유 문제를, 장편 <지구인의 늦은 하오>에서는 종말론을 배경으로 한 구원의 문제를,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과 <섬, 그리고 트라이앵글>에서는 지식인들의 이념적 표류와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인간소외 등을 다루며 주제의 다양한 변주를 실험했다.

1990년대의 중반에 이르러 그는 창작방법론과 주제의 지향점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특히 20대 신세대와 기존의 선배작가 사이의 과도기적 세대이자 전업작가라는 위치는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1996년 3월, 5년 동안 쓴 연작소설 <호텔 캘리포니아>를 마지막으로 1980년대의 리얼리즘에 작별을 고했다. 1980년대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의 고통스런 삶을 그린 이 소설은 지난 10년 간의 작업들을 한데 모아놓은 '벽화'와도 같은 작품으로 작가의 소설관의 방향전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후 중편 <독산동 천사의 시>(1994), <말무리반도>(1997), <내마음의 옥탑방>(1998) 등을 발표하면서 1980년대의 정치적 부채의식에서 출발한 그의 소설 세계는 주제와 소설방법론상의 굴절을 거쳐 일상적 현실로 소설의 무게 중심을 옮겨 한 단계 성숙한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작품소개 출처 : 작가 홈페이지

• 문의 : 열람관리팀 안성두 (stork@dongseo.ac.kr)

**이 한권의 책**

### 왜 원형제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를까?

-『하늘에 속한 사람, 현대판 사도행전의 기적, 원형제의 중국 전도행전』을 읽고서-



김홍련  
디자인학부교수

20세기 90년대 말에 중국 종교계에 큰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이 외국으로 망명하였다. 그 중, 한 사람은 99년에 망명한 李洪志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책자 『하늘에 속한 사람』, 홍성사, 2005)의 주인공 원(雲)형제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종교 신앙의 자유 때문에 중국정부에 의해 수배 당하였지만, 그 두 사람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李洪志는 본인 스스로 전지전능한 신(神)이라고 자칭하면서 『붉은 중국의 공포 파문공, 황소자리, 2005』 그가 설립한 파문공의 일인자로 자처하지만, 원형제는 본인을 "하늘에 속한 자" 라고 부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리면서 시종일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고 있다. 종으로 일하는 그를 왜 하늘에 속했다고 하였을까? 원형제가 처음으로 "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외친 목적은 중국공안의 추적을 피해 도망하면서 가정교회(중국정부의 관할을 받지 않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피신하라고 하는 신호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중국공안과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되었다. 한 사람의 이름, 특히 별명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럼 원형제는 어떠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본명이 劉振營인 원형제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중국하남성의 평범한 농촌 소년이었다. 그러나 1974년에 폐암에 걸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신을 처음 만난 이후부터 그는 헌신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 내렸다. 그의 첫 기도제목은 성경이었고, 그 응답으로 얻은 성경을 그는 통째로 외웠으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포한 첫 설교가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통으로 외운 말씀이었다. 하늘에 속한 사람 - 원형제는 신학교의 문턱도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출신 신학교를 물으면 그는 거침없



이 감옥이라고 대답한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전도하는 그 순간부터 망명하기까지 그는 신앙을 위해 중국공안들에게 추적당하고 잡히며 매 맞는 고난의 순간을 반복하였었다. 세 번 감옥살이 중 첫 번째 체포되었을 때, 그는 74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죽음의 끝자기를 지나는 법을 배웠으며, 두 번째 투옥생활에서 원형제는 사역하는 주님을 만났고, 세 번째 체포되었을 때 기적처럼 탈옥하면서 전능하신 주재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는 "감옥신학교"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든지,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였었다. 원형제한테 있어서는 그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선택된 전도의 대상자였다. 책을 통해서 보면 원형제의 전도행전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말씀에 있어서 주석하는 것 보다 성경을 그대로 외우면서 전하는 것이고 한번 말씀을 전할 때 네 다섯 시간을 연이어서 설교하며, 전도의 방향이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동시에 말씀에 비취서 해석하며 행동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해서 주님의 맡기신 영혼이라는 사명감과 성경에 대한 부정확한 해석으로 인한 가정교회 내의 분열 분파를 가슴 아파하며 연합을 추진하는 점,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한 지도자 양성을 성령님께 의지하여 성령주요소를 설립했다는 특징들이 있다. 그 외에도 고난을 받을 때, 전능자의 능력과 영광을 위해 달갑게 평안하게 받는 것과, 말씀을 전할 때부터 그의 입을 떠나지 않는 찬송들이다. 하늘을 날 수 있으며, "내가 도였고 법이며 신이었다"는 李洪志와 원형제 중에 누가 더 하늘에 가까우며 하늘에 속한 자일까? 고난 당할 때 말 없이 금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어진 때와 장소에 담대히 말씀을 외치며, 한 영혼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많은 영혼의 하나됨을 호소하면서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원형제인가, 아니면 "예수도 못 이룬 구원을 내가 이룬다"는 李洪志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에게 속하였는 것이며 누구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스스로 하늘이라고 자칭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한 참 신이고 진리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가 이룬 구원을 전파하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원형제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 영상문화실 영화 상영 안내

### 2005년 1학기 영화상영계획

상영날짜	상영시간	상영내용
05.03.11(금)	오후3:00-5:00	꽃피는 봄이오면 / 최민식
05.03.25(금)	오후3:00-5:30	오페라의 유령 / 제리드 버틀러
05.04.15(금)	오후3:00-5:00	B형 남자친구 / 이동건, 한지혜
05.04.22(금)	오후3:00-5:00	파송송 계란탁 / 임창정, 이인성
05.05.13(금)	오후3:00-5:10	브릿지존슨의 일기2 / 르네젤위거
05.05.27(금)	오후3:00-6:00	알렉산더 / 안소니 홉킨스
05.06.11(금)	오후3:00-5:00	그때 그사람들 / 한석규, 백윤식

※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매체제작실 담당 이세정 (clickne@hanmail.net)

## 집중 탐구

프랑스 대학도서관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대학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집중탐구코너를 마련, 3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 프랑스 대학도서관의 발전 방향과 시사점



전현중

국제관계학부 교수

### 1. 대학도서관의 발전 동향

#### ▶ 발전동향

- 프랑스 대학도서관은 지난 수년간 크게 발전하였으며, 현대화를 이룩 : 1992-2001사이에 도서관면적은 350,000m<sup>2</sup> 증가, 고용은 1,750명증가, 개방시간은 주당 평균 40시간에서 56시간으로 증가
- 전국 대학도서관 관리의 완전 전산화
- 인터넷을 통해 검색가능한 고등교육기관 종합목록 구축 : 5백만권 이상 도서정보, 12백만권 이상의 DB 구축
- 이용자 급증: 소속대학도서관 등록 학생의 비율이 1992년 56%에서 2001년 72%로 증가
- 이용빈도 점증: 등록 학생당 연간 도서관 이용빈도는 같은 기간 연34회에서 46회로 증가
- 도서대출권수 증가: 같은기간 연간 7.9권에서 10.6권으로 증가
- 2002년도 대학도서관 발전추세 지속: 연면적 25,000m<sup>2</sup> 도서관 개관, 148명 도서관직원 신규채용, 자료구입보조금 6백만 유로(39.4 백만 프랑) 또는 7% 증액(도서구입촉진, 디지털 자료증가에 따른 초과비용 발생 대응)

#### ▶ 4대 발전방향

##### 1) U3M 계획과 도서관

- 2000-2006년간, "국가-지역 협약(contrats du plan Etat/Region)"에 의해 약 5.8억 유로(38억 프랑)의 대학도서관 관련예산 증액. 연면적 약 300,000m<sup>2</sup> 도서관 증설가능 예산
- 현대화가 부진한 수도권 대학도서관 지원 집중
- 국립예술사연구원(INHA) 도서관, Branly 박물관, Jussieu 지역 도서관 건립 등

##### 2) 대학 자료제공기능 강화

- 각기관 자료의 공동서비스를 위한 대학도서관 통합정책 개발
- 자료조사를 위한 이용자 교육 강화: 현재 13만명 정도 이용교육수혜하고 있어 매우 적은 편임. 자료조사를 위한 이용자 교육은 대학1기 과정(1,2학년) 탈락방지와 대학생 학력저하를 방지하는데 주요한 역할

##### 3) 정보시스템 구축의 일반화

- 다양한 디지털자료 접근과 동시 이용가능한 정보시스템 정착: 개별카탈로그, 집단카탈로그, CD-ROM망, 데이터 베이스, 사이버 강의, 전자저널, 디지털화된 학위논문 등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고등교육기관과 4개년 계약으로 6백만 유로 투입. 연간 5십만권 규모의 박사학위 디지털화(다수 대학참여 공동 프로그램으로 운영)

##### 4) 네트워크 운용의 활성화

- 고등교육기관 자료의 체계화 개선(과학/기술정보 수집/전달 센터 [CADIST]의 혁신을 통해 달성)
- 전자자료 구입을 위한 구매컨소시엄 형성
- 고등교육종합카탈로그를 능가하는 대학자료시스템(SUDOC) 확대

· · · 다음호에 계속